

시 초

비랑술을 가꾸며

박 봉 철

출근길에서

산마루에 등실 해가 솟는
 내 고향의 아침입니다
 산기슭엔 우유빛안개 흐르고
 숲속에선 고운 새들 목청을 뽐냅니다
 저만치 앞에선 장난세찬 검둥이
 돌부리우의 평을 놀래우며 달려갑니다

실개울건너 산기슭에선
 분조원들이 다투어 포전길에 오릅니다
 붉은기 어깨에 멘 철이를 선두로
 산기슭을 질러간 오솔길에
 한줄로 늘어섭니다
 호호하하 온 풀안을 웃음으로 흔들며...

능청스런 철이녀석 또 싱거운 소릴 했나봅니다
 종주먹 안기던 이악쟁이 영심이
 성차지 앓은듯 길가의 회초리 꺾어듭니다
 실없는 통질에 때로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고리마냥 떨어질줄 모릅니다
 우리 분조 입심좋은 아주머니들
 어서 국수를 먹자고 또 성화를 먹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하루
 이제 발이랑 타고앉으면
 앞서거니뒤서거니 경쟁바람에
 뽕숲이 통채로 끊을겁니다
 열흘나마 앞당긴 세벌김매기
 오늘계획도 갑절로 넘쳐할겁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발 다우쳐집니다
 분조장대회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 받들어
 올해에는 고치장훈 더 크게 부르자고
 저렇게 떠들썩 기세도 높으니

그날이 벌써 눈앞에 보이는듯
 이제 가을이 오면 철이의 국수도 먹는겁
 가을잔치도 푸짐히 차리자는
 옥이 엄마 청높은 목소리에
 또 한번 흐드러지는 웃음발
 뽕숲 우거진 등판을 감돌아 메아리칩니다

꽃과 새 그리고 처녀...

어느 노래가 더 듣기 좋습니까
 숲에서는 새들이 노래부르고
 포전에선 뽕따는 처녀가 노래합니다
 어느 노래가 더 좋습니까?

마치도 노래로 일하는듯
 온종일 노래로 사는 처녀
 해마다 누에고치 최고의 실적이
 그 처녀 부르는 노래에 있는듯 합니다

무엇이 더 아름답습니까
 분조원들 안겨준 싱싱한 들꽃다발

수집어 붉어진 처녀의 얼굴
 무엇이 더 아름답습니까?

산같이 고치를 안아내고도
 오히려 숙인 머리 들줄 모르는
 그 마음 그대로 비단이 아닙니까
 조국에 더 큰 사랑 바치고만싶은!

뽕숲엔 고운 새 목청 뽐내고
 기슭엔 산나리꽃 피어 반겨도
 정녕 무엇이 더 아름답습니까
 꽃과 새 그리고 처녀...

지 름 길

가지자르기 바쁜 때라
성큼성큼 지름길에 접어드는데
누군가 찾는 목소리
돌아보니 우리 분조 제대군인 철이다

군에 간 보급원이 오지 않는다고
웁으로 뺨은 동구길 지켜섰더니
무엇인가 휘휘 휘두르며 오는걸 보니
기다리던 새 기술잡지를 받았나보다

늘쌍 책을 끼고다니며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한다 극성이길래
웬걸 큰일치랴 했더니
아니 글썄 올라갈 누에치기총화에서
군적으로 첫손에 꼽힐줄이야

허허, 안되겠어
그래도 내 판엔 실농군이라
무시할수 없는게 경험이라 했더니
보기 좋게 통팍을 먹을줄이야

한달음에 두세걸음 쿵쿵 내짚어
어느덧 나를 따라앞서는 철이
저 걸음새면 잠간새에
아득히 나를 뒤떨구고 나아가겠지

그래그래 먹은 나이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열심히 배워야겠다
아무렴 과학농사야말로
더 큰 풍작 안아올 래일로 가는
진짜지름길이지

영 예 사진 늘 어 갈 수록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높이
봄누에치기경쟁에서
이해에도 또다시 1등한 자랑
나는 사진첩을 펼치고
또 한장 영예사진을 붙인다

수수한 작업복차림
가슴엔 상심한 들꽃다발
제일처럼 기뻐하던 분조원들 마음인가
사진속의 꽃송이도 활짝 웃는다

드바쁜 농사일에
한해치고 사진찍을 일 몇번이라만
이렇게 사진첩에 영예사진 늘 어 갈 수록
생각은 절로 깊어진다

펼쳐보면 여기엔
얼마나 많이 새겨있더냐
위대한 장군님 안겨주신
첫 선물 받아안은 기쁨속에 한장
잊지 못할 야영의 즐거움속에 또 한장...

꾸밈없이 밝게만 뒤희며 자란 모습
소중히 품어안은 사진첩이여
어쩌면 너는 내 지금껏 누려온
행복의 기록장은 아니었더냐

그때문이다
받아안은 은정은 산만 같은데
바쳐온 진정은 모래알같아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모자라는 이 마음

불태워가리라 내 한생
언제나 보답의 큰 자옥만 찍으며
조국앞에 떳떳한 그런 모습만
너의 갈피마다에 새겨가리니

그러면 먼 후날 우리 자식들
글쭉이 아닌 이 사진첩에서 읽게 되리라
아버지가 남긴 인생의 참된 자서전을
궁지도 높이 자랑에 겨워...

나의 소원

불어뜰내 우리 흘린 땀방울들을
여기에 다 모아놓았나
알알이 잘도 여문 하얀 고치들
쌀이고쌍여 산을 이루니
아, 못 건디게 그리워지는 원수님 생각

얼마나 기뻐하시랴
내 고향 자강땅에
고치풍년든 이 소식 들으시면
황금해 출렁이는 천리어장이며
사과향기 목메이는 백리과원...

수령님들 념원이 꽃피나는 곳이면
어디나 다 찾아가시는 원수님
이제라도 문득
흐뭇한 이 작황 보아주시려
두메라 내 고향에도 들려주실듯
오시여 기쁨속에 환한 미소 지으실듯

아, 생각만 해도 울렁이는 가슴
사무처 목메이는 이 소원 안고
원수님 가시는 자욱자욱
우리는 마음속에 따라서지 않았더냐

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주실 땐
능금불 귀여운 아이들의 그 색동옷을
내 익힌 고치로 뽑은
실실이 비단실로 짜주고싶고

방선의 병사들을 만나주실 땐
일당백용사들의 그 무쇠가슴에
그 어떤 총탄도 뚫지 못할 갑옷을

내 땀 스민 비단으로 지어주고싶던 우리

그 간절함이다 나의 소원은
온 나라 인민을 비단으로 감싸안아
원수님께 어느때나 기쁨만을 드리고픈
원수님의 인민사랑 꽃으로 피우고픈!

정녕 우리 이 한해
땀을 뿌려 뽕숲만 가꾸었더냐
마음속 진정을 아낌없이 쏟으며
그 소원을 가꾸고 자태우지 않았더냐

그래서 더더욱 소중하구나
마음속에 무겁도록 안아보는 이 하얀 고치는
자나깨나 원수님께 향한
그 뜨거움으로 익혀가는 그리움의 열매여라

(자강도 장강군 혁신리 농장원)